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02)(10/20/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4 장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임, 16-18 절

느 9:6 -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신 1:11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 119:131 -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 119:147-148 -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한다. 반면에, 은혜는 모든 것을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어떤 선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며,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 오만방자하게 행하지도 않고, 다투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고, 분별과 명철이 요구되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드린다.

17. 본성은 은밀한 일들을 몹시 알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몹시 듣고 싶어 하며,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서, 자신의 감각들로 많은 것을 몹시 경험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은혜는 새롭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새롭거나 영원한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타락한 옛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각들을 억제하고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헛된 자기만족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피하라고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에는 그 일들을 숨기고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모든 일과 모든 지식에서 유익한 열매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은혜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그가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18. 이 은혜는 본성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빛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표이고,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 들어올려서,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고, 육신적인 사람에게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본성이 억제되고 정복되는 정도만큼,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말씀과 해설:

15) 본성의 사람은 삶의 모든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본성의 사람은 교만히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지만, 은혜의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행한다.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느 9:6 -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엡 4:5-6 - 5.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신다.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민 27:16)라고 불렀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렘 10:12 -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도행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권능의 존재라고 묘사한다.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신 1:11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에게 어떤 존재이심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며, 겸손히 몸을 낮춘다. 시 115:1 -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6) 본성의 사람은 이 땅의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이 많지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과 사람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깊이 묵상한다. 시 119:131 -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 19:9-10 -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 119:147-148 -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본성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당시 복음 전파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심지어 바울 자신을 괴롭히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빌 1:17)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 자체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했다. 바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은혜의 사람이었다. 시 108:5 -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17) 은혜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며 선물이다. 엡 2:8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 골 3:1-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은혜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고후 4:16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며, 이 땅을 살 동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학교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하영광(인도네시아), 홍리브가(말레이시아), 흥패밀리(키르기스스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